

# 연준 이사 해임 효력 긴급 요청

## 트럼프 대통령, 이사진 재편 금리인하 우호 구성 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리사 루크 이사를 해임하려는 조치의 효력을 이번 주 통화정책 회의 전에 되살려달라며 연방항소법원 DC순회재판부에 긴급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연방지방법원 지아 콕 판사는 루크 이사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임을 막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법무부-변호인단은 15일 오후까지 집행정지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6-17일 금리 결정을 위한 정례회의를 연다.

법무부는 항소이유서에서 대통령에게 광범한 면직 재량이 있으며, 최소한 해당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 법원은 연방준비제도법이 이사진 해임을 '정당한 사유'로 제한하고, 그 사유 역시 재직 중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국한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루크 이사 측은 이번 해임 시도가 통화정책 성향을 이유로 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펄티 국장이 제기했다는 모기지 사기 의혹을 해임 사유로 들었으나, 루크 이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회는 펄티 국장이 최근 여러 고위 인사에 대해 유사한 형식의 형사 고발 회부를 반복해 왔으며 서한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법무부에 공식 기소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면직 권한 범위를 시험대에 올렸다. 콕 판사는 결정문에서 "연준의 독립에 대한 공익은 루크 이사의 직무 복귀에 무게를 실는다"고 적시했다. 루크 이사 해임 시도는 연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안으로,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 판단까지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 물가 예상보다 오르고 실업청구 급증

## 8월 0.4% 1월 이후 최대폭, 실업 4년만에 최고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

노동부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계절조정 기준 전월 대비 0.4% 올라 올해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로써 연간 물가 상승률은 2.9%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높아졌으며, 역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각각 0.3%와 2.9%였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시장 예상과 일치했다. 연준은 근원 CPI를 장기적 물가 추세의 더 나은 지표로 간주하며, 목표 물가 상승률은 2%다.



▲ 월마트 매장에서 한 고객이 쇼핑 카트를 밀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고용 지표에서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6일로 끝난 주에 26만 3,000건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23만5,000건)를 크게 웃돌았다. 전주 수정치보다 2만7,000건 늘어난 이 수치는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CPI 상승에는 주거비(지수 비중 약 1/3)가 0.4% 오른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음식 값은 0.5%, 에너지는 0.7% 상승했으며, 특히 개스 값은 1.9% 올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현 4.25~4.5%)를 인하할 가능성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약세와 완만한 물가 흐름을 감안해 연준이 통상적인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전격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0월 추가 인하는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으며, 12월에도 세 번째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는 8월에 0.1% 하락했지만, 관세 민감 품목인 신차 가격은 0.3%, 중고차 가격은 1% 각각 상승했다. 다만 연준은 재화보다 서비스 비용을 중시하며, 관세는 일시적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서비스 가격(에너지 제외)은 8월에 0.3% 올랐고, 연간 상승률은 3.6%였다. 주거비 또한 전년 대비 3.6% 상승했지만, 2023년 초 8%를 넘었던 정점에서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할 여지가 있었다 해도 이번 실업수당 보고서는 결정을 굳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청구 건수가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기 시작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해고는 상대적으로 억제돼 있어, 제롬 파월 의장이 강조해온 탄탄한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약화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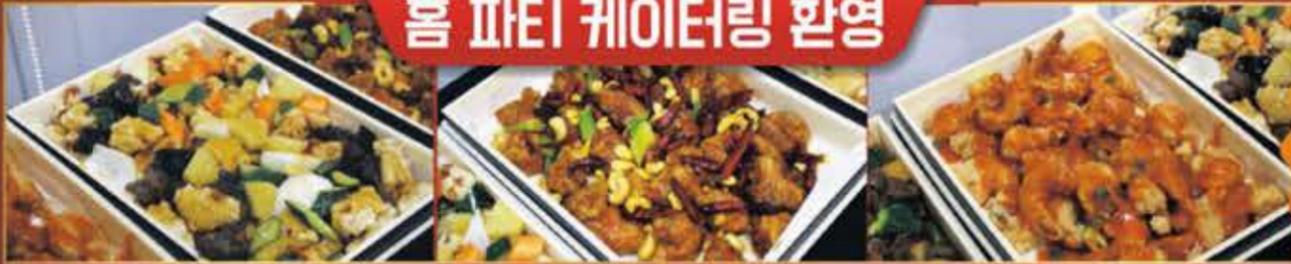
# 용문루

##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홈 파티 케이터링 환영



\*\*\*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